

벌써 23승... '김효년의 해' 예약

인빠지기·휘감기 등 전법 자유자재 구사
꾸준한 경기력에 '89.2% 연대율' 자랑
하반기 4연승...다승왕·상금왕 등 유력

우리는 그를 '미사리의 메시'라 쓰고 '김·효·년'이라 읽는다.

키 166cm, 몸무게 55kg. 김효년을 평가할 때 결코스만 보고 단정하면 큰 코 다친다. 왜소한 체구에서 뿜어 나오는 에너지가 활화산 같기 때문이다. 머리는 얼음보다 차갑고 열정은 한여름 더위보다 더 뜨겁다. 우리나라로 마흔 한 살. 불혹의 고개를 지나왔건만 아직도 팔팔한 청춘이다.

한 달 전쯤 17승 고지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을 때, 그랑프리 포인트 경쟁에서 김민길에게 뒤처졌을 때, 많은 경쟁팬 사이에서 '이제 김효년도 간 것이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기우였다. 그는 하반기 총성과 함께 '나 살아 있어, 봤지? 나, 김효년이야!'라고 외치듯 실력으로 그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김효년의 모든 것을 보여주다

그는 하반기 시즌 시작과 함께 4연승을 쓸어 담았다. 김효년은 1일과 2일 미사리경정장에 섰다. 상반기시즌을 마치고 2주 만이었다. 이날 그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70번 모터를 배경받아 경주에 나서 인빠지기, 휘감기, 휘감기 등 전법을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특히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 상반기 MVP에 이어 하반기 들어 4연승을 기록하며 다승, 상금, 승률, 연대율 등 각종 순위 1위를 싹쓸이하고 있는 '미사리의 메시' 김효년. 올해 41세로 불혹의 나이이지만 젊은 후배들의 추격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독주를 하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2일 13경주에서는 가장 불리한 6코스에서 출발했지만 역전승하며 미사리를 뜨겁게 달궜다. 1,2일 각각 2경주씩 총 4회 출전해 4전 전승을 한 입에 삼켰다.

●벌써 23승...다승왕 예약

김효년의 승수쌓기가 다시 시작됐다. 벌써 23승째다. 다승왕 1순위다. 아니 이미 다승왕 자리에는 '김효년'이라는 명패가 자리 잡고 있다. 다승 공동 2위인 서화모와 정민수를 9승 차로 따돌리고 있다. 30승 고지도 손에 잡힐 듯하다. 상금도 벌써 5981만원을 챙겼다. 상금랭킹 1위다. 2위 그룹인 장영태(3984만원) 정민수(3941만원) 한종석(3941만원)과 2000만원이나 벌렸다. 상반기 MVP도 잡아냈다. 이 정도면 독주라는 말이 어울린다.

●꾸준한 경기력...승률 연대를 독보적 1위

김효년의 쾌속질주엔 이유가 있다. 꾸준한 경기력이 그것이다. 시즌 초부터 거의 매 경기 입상했다. 간판급 선수들이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여준 것과 대비된다.

그의 성적표를 엿보자. 7일 현재 김효년은 전체 성적순위 1위다. 평균 착순점(8.95) 평균 득점(8.62)뿐 아니라 승률(62.2%) 연대율(89.2%) 삼연대율(94.6%)에서도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위인 김현철(승률 46.2%, 연대율 73.1%, 삼연대율 92.3%)과 3위 어선규(승률 40%, 연대율 66.7%, 삼연대율 86.7%)를 크게 따돌렸다.

브레이크 없는 김효년의 질주는 어디까지 지속될까. 경쟁팬들의 눈은 22~23일 열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대상경정이 쏠려있다. 봉련의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재자 기자 soi@donga.com

경륜 하반기 구도는 '빅3' vs 정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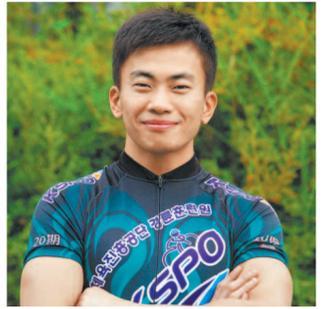
정종진 5월 후 8연승 포함 승률 80%
박용범·이현구·김주상 아성에 도전

"하반기는 내가 접수한다" vs "경륜판은 빅3의 세상이다."

2015년 하반기 경륜에서 태풍의 눈은 정종진이다. '다크호스' 정종진의 가세로 경륜 최강자들 간의 경쟁에서 승자를 예측하기 더욱 힘들어졌다.

육일승천(旭日昇天 :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세력이 성대해 짐) 파죽지세(破竹之勢 : 힘이 강대해 대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 괄목상대(刮目相對 : 학식이나 재주가 전에 비해 몰라볼 정도로 부쩍 향상 됨). 그렇다. 정종진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이쯤 될 듯하다.

정종진의 경륜인생은 2015년 5월을 기준으로 돌로 나뉜다. 그 이전까지 정종진은 '가능성 있는 선수'였다. 하지만 5월 이후의 정종진은 무섭게 치고 올라온 '경륜의 새 별'이다. 정종진의 4월까지 승률은 19전 9승으로 47%에 불과했다. 하지만 5월부터 페달에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5~6월 두 달 간 승률이 80%로 경종 뛰어올랐다. 8연승을 포함, 15회 출전해 무려 12승을 거뒀다. 화룡점정을 찍은 것은 상반기 최고의 빅데어였던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챔피언 타이틀이다. 이사장배를 거머쥔 정종진은 7일 현재 슈퍼특선급의 '백전노장' 김



정종진

민철까지 제치고 랭킹 8위로 뛰어 올랐다. 지난해 그는 35위였다.

이 같은 초고속 성장에 힘입어 다승 부분에서도 박용범(24승), 김주상(24), 이현구(22승)에 이어 21승으로 단숨에 4위에 자리했다. 이사장배 우승상금 1800만원까지 획득하며 상금도 9560만원으로 지난해 21위에서 역시 4위로 치솟았다.

이제 하반기 경륜의 구도는 기존 빅3(박용범, 이현구, 김주상) 대 정종진의 대결로 압축됐다. 정종진이 파죽지세의 기세를 이어나가 '신 4강 체제'가 구축될 것인가. 아니면 정종진이 '차탄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정종진이 '차탄 속의 태풍'으로 치부하기엔 '차탄'이 너무 컸다는 것이다.

연재자 기자 soi@donga.com



국민생활체육회가 27~31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3회 2015 국민생활체육 걷기국토순례를 실시한다. 올해는 지리산 둘레길 약 64km 코스를 걷는다. 지난해 국토순례에 참가해 도로변을 걷고 있는 청소년들. 사진제공 : 국민생활체육회

지리산 둘레길 64km '청소년 걷기 국토순례'

27일부터 4박 5일 일정...매일 6시간 평균
11일까지 전국 중·고교생 누구나 신청 가능

생활체육 733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강영중)가 청소년을 위한 제3회 2015 국민생활체육 걷기국토순례를 개최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걷기국토순례를 실시하고 있다.

일정은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이다. 올해는 지리산 둘레길 약 64km코스를 걷는다. 전국의 중·고교학생을 대상으로 1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서류전형 및 면접, 신체검사를 거쳐 20일에 200명을 최종 선발한다.

걷기코스 출발지에 따라 전라권과 경상권으로

코스를 나누어 같은 일정으로 지리산 둘레길을 걷게 된다. 참가자들은 27일 각각 산동면주민센터(전북 남원시)와 윤리마을회관(경남 산청군)에 모여 출정식을 가진 후 매일 6시간씩 20km 내외를 걷는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단순한 단기 훈련식의 활동을 지양하기 위해 농촌봉사활동, 전문직업인 초빙강연, 품앗이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걷기 코스 주변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둘째날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 날에는 금계마루(경남 함안군)에서 모든 참가자가 만나 합동 해단식을 개최한다. 국토순례를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완주증과 심폐소생술교육 및 3급 걷기지도자자격과정 수료증을 수여한다.

전국걷기연합회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의 형태로 전체 워크숍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일정, 생활지침 및 안전통제대책, 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순례 진행 중 함께할 팀도 편성한다. 각 팀의 팀장은 국토순례 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에서 선발하며, 전체 일정을 총괄하는 지휘부는 현지 대학교수, 교사 및 교직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걷기국토순례가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어울려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 및 학교 폭력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걷기국토순례 참가비는 15만원. 참가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서는 국민생활체육회전국걷기연합회(02-523-2383·www.walk4al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경륜아카데미, 18·19일 경륜훈련원서 개최

메르스 여파로 6월 취소됐던 'KSPO 경륜아카데미'가 18일과 19일 일주일 동안 경북 영주시 경륜훈련원에서 열린다. 올 들어서 세 번째인 경륜아카데미는 참가자 모집 5일 만에 25명의 정원이 마감됐다. 참가자들은 1박2일 동안 합숙하며 현지 특선급 경륜선수에게 자전거 정비부터 자전거 이론 및 피팅, 물러 교육, 물러 인터벌 훈련 등 경륜후보생과 똑같은 방식의 교육을 받는다. 또한 경륜선수들처럼 벨로드롬 200m 주행거리에서 실시하는 개인기록 측정은 스피드와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어 교육생들에게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기념품도 제공한다.

성낙승, 경륜 21기 신인왕...배정현 준우승

3일 평택스피드에서 열린 21기 신인왕전에서 성낙

승이 폭발적인 페달링으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우승하며 신인왕에 올랐다. 훈련원 수석졸업생 배정현(27)이 준우승을 차지했고 강진원(26)이 뒤를 이었다. 21기 16명의 신인왕수 가운데 상위 랭킹 7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당초 성낙승과 배정현, 황인혁의 3파전이 예상됐지만 황인혁은 6위에 그쳤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성낙승에게 꽃다발과 470만원의 우승상금을 수여했다.

류해광, 경정 6월 베스트 플레이어

류해광(31·7기)이 6월의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2일 미사리 경정장 선수들에서 월간 베스트 플레이어 선정 행사를 열었다.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된 류해광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류해광은 6월 총 6경주에 출전해 우승 3회, 준우승

3회 등 올 시즌 들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류해광은 앞으로 한 경주만 더 1~2위권 내에 들면 B1급에서 A2급으로 특별 승급한다. 류해광은 후보승전 2012년 2008년 경정에 입문해 현재 6승째를 올리고 있다.

'여전사' 김지현 차세대 주자로 급부상

지난주 미사리 경정장의 '여풍'이 멈추지 않았다. 김지현(28·11기)을 비롯한 박정아(36·7기)와 이지수(35·37기) 김인혜(25·12기)가 각각 1승씩을 더했고 이주영 역시 2-3차를 차지하며 여풍에 가세했다. 특히 2주전 미래 경정여왕전에서 우승하며 주가를 높였던 '여전사' 김지현은 지난주에도 1승과 3차를 추가하며 차세대 주자로 급부상했다.

*우승후보 ○우승도전 ○상대 △북빙												
9일												
별기	선수	나	체	항	승	연	3월	연	연	연	연	연
승	수	이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제(1) 경주 일반경주(1,800m)12:20												
1	2	이종호	43	58	5.76	23.47	1.47	1.50	38.2	9	★	★
2	7	류해광	31	62	6.78	27.86	7.22	49	38.8	0	△	△
3	4	이현우	40	60	4.62	15.23	1.30	8	35	20.4	0	△
4	11	김민철	32	57	4.69	6.3	37.5	43.8	76	42.1	7	○
5	11	박재민	30	54	2.60	0.0	0.0	13.3	19	38.2	10	△
6	10	박준호	29	65	4.00	5.6	22.2	38.9	45	44.9	8	△
제(2) 경주 일반경주(1,800m)12:40												
1	9	신현경	35	52	4.94	5.9	23.5	41.2	26	19.8	8	★
2	6	손재민	33	60	5.67	27.84	4.44	55.6	27	53.8	10	★
3	1	윤승민	46	59	4.67	13.30	2.00	46.7	94	27.8	9	★
4	2	이정호	37	61	3.47	6.7	6.7	26.7	43	46.7	7	○
5	11	김민철	29	63	3.61	11.1	11.6	27.8	23	18.8	8	○
6	8	이승환	36	59	8.55	35.5	58.8	70.6	102	36.6	6	○
제(3) 경주 일반경주(1,800m)13:00												
1	4	구희구	37	62	7.65	52.9	58.8	75.6	109	42.6	6	★
2	8	정주현	31	51	12.16	4.1	2.47	1.00	43.3	12	○	△
3	13	김태용	29	53	3.80	13.13	2.30	84	25.0	9	○	△
4	8	오승환	42	61	5.82	17.6	4.1	64.7	34	46.7	7	○
5	2	한 윤	42	55	3.25	6.3	6.3	18.8	97	37.3	11	○
6	2	진석현	40	65	5.56	16.7	38.9	50.0	105	17.8	10	△
제(4) 경주 일반경주(1,800m)13:20												
1	5	김창규	35	57	4.44	6.3	25.0	43.8	51	45.1	1	★
2	1	김창규	44	60	7.07	26.7	66.0	80.0	89	34.3	3	★
3	1	이태희	44	56	6.53	35.3	47.1	70.6	29	35.7	11	★
4	3	이지수	35	59	5.39	16.7	38.9	61.1	39	30.5	5	○
5	7	장수영	35	56	4.88	5.9	11.8	52.9	91	21.7	10	○
6	12	김민철	36	59	8.13	12.5	5.25	31.3	64	38.9	6	○
제(5) 경주 일반경주(1,800m)13:45												
1	1	김창규	45	54	5.75	12.5	18.8	25.0	42	32.4	11	★
2	12	박준호	31	56	3.56	6.3	12.5	25.0	30	24.5	0	○
3	1	장영태	40	61	7.33	22.2	27.2	77.8	68	33.0	12	★
4	2	최재원	47	59	5.76	5.9	35.3	58.8	46	37.6	0	○
5	3	문안나	31	52	5.13	12.5	31.3	50.0	87	33.6	15	△
6	10	박재민	28	52	6.50	31.3	43.8	62.5	63	26.2	13	△
제(6) 경주 일반경주(1,800m)14:10												
1	11	김민철	27	49	4.13	6.3	18.8	31.3	74	37.8	0	○
2	9	김창규	29	61	5.87	20.4	46.7	60.0	37	28.7	0	○
3	1	임인섭	41	61	2.76	0.0	5.9	17.6	98	41.9	14	★
4	2	김효년	41	55	8.58	57.9	84.2	89.5	116	26.2	15	★
5	2	신현경	42	64	5.12	0.0	29.4	58.8	31	27.4	0	○
6	12	김민철	32	61	3.71	11.8	11.8	23.5	22	32.1	0	○
제(7) 경주 일반경주(1,800m)14:35												
1	2	사재준	41	60	5.28	11.1	33.3	55.6	14	36.2	13	★
2	6	양현준	38	52	5.87	6.7	40.0	60.0	101	45.0	14	★
3	13	김민철	27	58	6.13	12.5	37.5	37.5	61	36.3	3	○
4	6	안지현	30	52	4.00	0.0	0.0	50.0	24	25.5	0	○
5	11	김민철	32	57	4.69	6.3	37.5	43.8	76	42.1	1	○
6	3	박정아	36	49	6.65	17.6	58.8	76.5	9	28.3	15	○
제(8) 경주 일반경주(1,800m)15:00												
1	10	박준호	29	65	4.00	5.6	22.2	38.9	45	44.9	1	★
2	1	나병창	40	58	8.00	25.0	50.0	56.3	15	49.1	14	★
3	4	어선규	37	57	13.37	5.75	0.0	67.2	38.7	15	○	○
4	5	구본철	37	66	2.00	0.0	0.0	0.0	2	30.3	0	○
5	1	박용범	45	57	5.41	23.5	29.4	52.9	1	27.9	0	○
6	1	신현경	35	52	4.94	5.9	23.5	41.2	26	19.8	2	○
제(9) 경주 일반경주(1,800m)15:25												
1	1	정주현	43	59	8.33	26.7	53.3	73.3	8	34.9	0	○
2	5	김창규	31	59	8.88	5.9	5.9	11.8	20	37.1	0	○
3	2	이종호	43	58	5.76	23.47	1.47	1.50	38.2	1	★	
4	8	김민철	36	58	8.47	60.0	80.0	103	35.6	6	○	
5	1	윤승민	46	59	4.67	13.30	2.00	46.7	94	27.8	2	○
6	13	김민철	29	53	3.80	13.13	2.30	84	25.0	3	○	
제(10) 경주 일반경주(1,800m)15:50												
1	11	박재민	30	54	2.60	0.0	0.0	13.3	19	38.2	1	○
2	7											